

특별기고

광주는 장애인 체육 요람이자 산실

신영용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최근 광주시청 장애인 양궁팀이 제2회 경기 도시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022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3차선발전을 겸한 이 대회에서 총 2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최강 실력을 재확인했다.

양궁·탁구 전국 최고 실력

며칠 전 일부 지방 신문에 올라온 뉴스를 접하면서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이런 대기록을 달성했는데도 알아봐 주는 이가 없다. 일부 지방 신문에만 기사와 뒷줄 뿐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이 외면했다. 이것이 장애인 체육에 대한 시민들이 갖는 이해와 인식의 서글픈 현주소다.

광주시청에는 양궁을 비롯한 탁구, 사격 등 3개의 장애인 실업팀이 있다. 3개 종목에 소속돼 뛰고 있는 선수들은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을 대표한다. 2020도쿄 패럴림픽 대회에서도 우리나라는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했는데 이중 7개는 광주시 선수단이 탁구 종목에서 획득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2021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64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5,164만여 명) 5.1%를 차지했다. 광주의 경우, 등록 장애인의 인구는 7만61명

으로 광주시 전체인구 140만683명의 약 5%에 해당하며 등록을 하지 않는 장애인의 인구까지 합산하면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현재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민들은 대체로 장애를 자기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80%가 질환(43.6%)이나 사고(36.4%)로 인한 '중도 장애인'이다.(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애인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다.

세계에서 일곱 나라 밖에 안 된다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속하지만, 장애인이 차별 없는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취약하다. 등록 장애인이 260만명이 넘는데 거리에선 장애인을 보기 어려운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터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 달에 한 번도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 비율이 8.8%, '월 1-3회'가 12.9%에 이른다. 장애인 5명 중 1명은 거의 집에만 머무른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서울패럴림픽과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고,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메달 획득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스포츠 복지 선진국으로 다가서고 있다.

특히, 장애인 체육은 당사자에게 신체·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기능을 갖는 등 장애인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이용 가능한 시설과

지원은 열악한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에 불과해 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60.1%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책이 명시, 장애인체육 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배치, 장애인 스포츠 인센티브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체육시설 확충 등 국가와 지자체의 복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5개구 장애인체육회 완성

다음 달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체육관인 반다비 체육관이 북구에서 문을 연다. 이어 서구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멋지고 당당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남구에 개관한다.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에 광주가 앞장서고 있다.

또 작년 광산구 설립에 이어 8월 중 동구 장애인 체육회가 출범한다. 비로소 광주시 5개구 장애인 체육회가 완성됐다. 우리나라 특·광역시 최초이기에 매우 보람차고 자부심이 가득하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시선이 더 변화돼야 한다. 장애 당사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이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분야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비장애인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을 위한 환경변화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 노력이 이어진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진정한 의미의 차별 없는 통합사회가 구현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목포형 상생일자리 수산식품 모델 의미

8,968억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목포수협은 전국 조기 위판량의 90%, 위판고는 2,062억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은 국내 수산물 생산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산 가공품 생산량은 전국의 27%, 수산물 수출액은 12%로 풍부한 자원에 비해 원물 거래 위주의 낮은 부가가치의 수산 식품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수산 가공 및 유통산업발전 5개년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2019년 2억 6,000만달러에서 2020년 2억 8,000만달러, 2021년 3억 400만달러로 수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수산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8,400억원을 투입, 수산 가공 및 유통소득을 2조 8,000억 규모에서 4조5,000억 원으로 60%를 더 끌어올릴 방침이다.

위와 같이 전남도 수산 가공 및 유통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해 목포시에서는 전국 제1의 수산 식품 도시 도약을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수산 식품 수출단지 조성, 목포 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 수출전략형 김 가공제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수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1,089억원을 투입, 수산 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임대형 가공 공장, 수산물거래소, 연구시설, 냉동·냉장창고 등이 구축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남 마른김 거래 표준 정립과 유통가격 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른

김 거래소도 구축한다. 연면적 4만 9,106㎡에 5층 건물의 임대형 가공공장이 설립되면, 수산 식품기업 36개 신규 투자 유치로 2,154명 일자리 창출, 1,97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수산물 유통구조혁신을 위해 목포 및 신안 지역 원물 생산자 단체와 가공 및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분석 및 품목별 유통실태 분석을 통한 식품기업, 원물 생산자, 지역주민, 목포시 등 경제주체별 이행과제를 도출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민정 상생 협력 체결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목포형 모델 발굴 전문컨설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후 지난 4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수산 식품기업 및 원물 생산자 사업설명회 개최, 6월까지 기업 및 원물 생산자 유통실태 파악했다.

7월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목포형 일자리 모델의 구체적인 논의를 통한 상생 협약(안)을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내년에는 노사민정 상생 협력 체결을 거쳐, 앞으로 3년 동안은 수산 식품에 특화된 목포형 일자리 이행계획서 및 사업투자계획서를 준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을 받고, 차질 없는 수산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전진기지 조성하고 함께 목포시와 중앙정부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으로부터 신규설비 증설 및 고용 창출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명실공히 목포시가 전국을 대표하는 수산 식품 제1의 도시로 웅비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시설

광주 현안, 도시구조·의식 전환 문제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숙원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최대 난제라고 했다. 강 시장은 수일 전 "1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가 돼 있다. 현안 중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일 힘든 과제"라고 말했다. 어등산 사업 문제가 법적인 소송이 얽혀 있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난코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사업은 17년째 끌어온 대표적인 '표류 사업'이다.

어등산 사업은 군부대 이전으로 방치된 어등산 일대 포사격장 부지에 휴양시설과 특급 호텔,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수차례 개발업체가 바뀌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법정 공방 등이 이어졌다. 2019년 3월 3차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취소되고 관련 소송이 벌어져 1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다.

강 시장은 당선인 시절 민선 7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인 어등산 사업 등을 '5+1'로 묶고 6개월 안에 답을 제시하겠다고 했

다. 복합쇼핑몰 건립, 자산 나들목(IC) 개통, 백은 지하차도 공사,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한 5가지 현안을 밀린 숙제라고 표현했다. '+1'은 군공항 이전 문제다. 사실 어느 하나 해결이 쉬운 게 없다. 모두 주민들 이해와 개발업체의 수익, 시민 공공성이 꼬이거나 부딪히고 있다.

광주지역은 근본적으로 개발보다는 보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 된다. 이 같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민감한 현안이 진척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복합쇼핑몰 유치와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만 하더라도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는 시민들이 있는데다 유지와 개발로 인해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 당국이 이를 돌파할 만한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설득하지 못하면 하세월이 불가피해진다. 광주 현안들은 도시 전체적인 발전 구조를 변화시키는 문제인데 이에 맞는 시민사회의 입장과 경제생활 패턴을 전환해야 하는 지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도암농협 쌀귀리 무단반입 잘못이다

지역 대표 농산물인 쌀귀리를 지켜야 할 단위농협이 다른 지역 쌀귀리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현상을 농민들에게 들켜 파장이 크다. 강진 도암농협은 최근 해당농협의 건조장시설이 있는 강진 신전면 곡물수매장에 '수입쌀'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하얀색 툰백 수습개를 들여왔다. 현장에 있던 농민들이 의아해하며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쌀귀리 72톤이었다.

문제는 강진산 쌀귀리 수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쌀귀리가 무단 반입돼 강진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직원들이나 농협 이사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조합장이 독단으로 반입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반입 이유 역시 올해 쌀귀리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 유통단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가공공정을 거쳐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사실을 파악한 쌀귀리 생산 농민들은 분개했다. 현재 강진군은 쌀귀리를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며 품질을 올리기 위해 재

배기술과 양질의 종자 확보·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쌀귀리 육성에 동참해야 할 지역 농협이 수익창출을 빌미로 타 지역 쌀귀리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들여온 것이다. 특히 이날 반입된 쌀귀리는 강진산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게 현장에 있었던 농민들의 증언이다.

이에 대해 도암농협 조합장은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인근 지역 한 업체 대표가 전화로 쌀귀리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해왔고 별 뜻 없이 이를 승낙했으며 강진산으로 둔갑시켜 쌀귀리를 판매하기 위해 들여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전에 직원들과 상의없이 반입한 것은 실수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지역 농산물을 지키고 유통해야 하는 농협이 다른 지역 쌀귀리를 들여왔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도정과 정을 거쳐 강진산으로 둔갑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했다. 이번 도암농협의 행태는 조합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농협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히 보인다.

해양 수상레저, 안전이 최우선

기고



박성배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양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발길이 바다로 향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관할 2022년도 상반기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는 총 457건으로 전년 439건 대비 4%가 증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규모 레저보트를 이용한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추세다.

목포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는 해마다 성수기에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또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년간 목포시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총 123건으로 이중 94건(76%)이 성수기(5월-10월)에 발생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성수기철 집중되는 사고를 대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수상레저 계획을 수립, 작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여름철 해양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바다에 나설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레저객은 파도나 기타 환경에 의해 해상에서 추락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다.

둘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출항 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취미 및 여가 목적의 레저 활동은 장비점검 미흡,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지난 3년간 관내 레저사고 중 86%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크다. 특히 동력레저기구 출항 전 연료유 점검(비상연료유 비축), 배터리 확인 등 사전 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끝으로, 해양정보 모바일 앱인 '바다네비'를 이용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요청 버튼을 누름으로써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사고 위치 전송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바다 낚씨는 수시로 변화해 사고 또한 예고 없이 찾아온다.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국민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자연에서의 힐링을 통한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는 해양경찰의 묵묵한 활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newspaper, featuring the logo and a QR code for subscription information.